

# '스티븐 킹'의 출판시장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지난 5월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에는 그 주간지가 선정한 '미국을 대표하는 현존 작가 25명'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나는 이 명단을 문학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독자 입장에서 읽었다. 이중 절반 가량이 13명의 작품이 우리에게도 번역됐다. 솔 벨로/토니 모리슨/존 업다이크/노만 메일러/스티븐 킹/레이 브래드버리/J. P. 셀린저/커트 보네커트/필립 로스/조이스 캐롤 오츠/윌리엄 스타이론/토머스 핀천/존 어빙 들이다.

번역은 됐지만 잘 읽혔는가. 그렇지는 않다. 솔 벨로·존 업다이크·노만 메일러·J.P. 셀린저의 소설들은 곧잘 팔린 셈인데 60년대와 70년대의 일이다. 80년대 이후 이들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

요즘엔 스티븐 킹만이 우리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킹은 공포소설작가로 지칭되지만 크게는 추리스릴러 영역의 작가이다. 또 이 분야에서 더 평가받고 있는 작가가 레이 브래드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독자가 별로 없다.

커트 보네커트·조이스 캐롤 오츠·윌리엄 스타이론·토머스 핀천들은 문학평론가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대상이고 또 노벨상 후보 반열에도 오르는 편인데도 이들은 소수 문학애호가들만이 독자이다. 토니 모리슨 하다가 근자에 노벨상을 받아서 상을 받은 해

에 좀 팔렸지만 이제는 시중에서 그의 책을 찾아내기도 어렵게 되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미국문화시장의 하부구조처럼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①스티븐 킹 정도의 소설읽기 ②60~70년대 읽었던 꽤 괜찮은 작가들마저 이제는 잊어버린 상황 ③아직도 상당한 가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작가들은 예나 오늘이나 아예 무관심한 대상이다. (그리고 번역조차 안된 작가들도 많다.)

우리가 미국편향적 문화국가라고는 하지만 미국을 바로 안다기보다, 그저 보통 정도 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문화에 관한 한 끊임없이 반미국적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늘 바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더 찾아낼 수 있다. 예컨대 루이제 린저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작가인데 저자의 본국에서는 그게 누군가고 묻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최근 한번 더 팔리고 있는 쥐스킨트 역시 유럽에서 한때 곧잘 팔린 작품이기는 하지만 리바이벌까지 성공하고 있는 작가이거나 작품은 아니다.

하긴 세상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또는 원작의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우리끼리 읽고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한다면 할 말은 없겠다. 그렇다 해도 오늘의 미국문학에서 스티븐 킹만을 즐겨 읽는 것

이 세상을 잘 살아갈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시간과 정력과 경비를 들여 번역까지 해서 읽어야 할 세계적 작품의 가치와 효용을 따질 때는 더욱 '읽을 만한 것의 수준과 의미'를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

왜 우리 독자의 취향과 독서시장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연한 결과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와 문화는 너무 낮은 차원으로 가라앉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주된 원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외골수로 TV매체에만 종속되었다는 데 있다. 신문도 잡지도 출판도 다 함께 자신의 매체적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 TV매체의 연장선상에 있었거나 또는 TV가 만들어내는 문화들을 보다 잘 시장화하는 PR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쓰는 소설은 목살되고, 20대 초반 TV텔런트는 TV드라마 단 1편에 출연해도 순식간에 주요 인사로 데뷔하는 현상까지 만들어졌다. 그 결과가 아마도 스티븐 킹만의 도서시장일 것이다.

나는 스티븐 킹에게 어떤 감정도 없다. 나는 스티븐 킹만을 알고, 이것에 매달려 지내는 출판시장의 입장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

# 출판저널

등록 제194호/1996년 6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허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옥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먹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88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漢文 · 漢字 · 古典

한문, 한자, 고전 전산입력, 편집전문업체

죽보, 문집, 경서, 술서, 한글고서 출판 상담  
C/D 죽보 제작 / 각종 古典 D/B구축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15 문화빌딩 401호  
전화 : 261-0046, 0047, 268-6083

고전출판 팔만

##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_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  
전직 출판사 편집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책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소홀해지기 쉬운  
교정과 교열은 "목숨을 걸고"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책마다  
독특한 표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동아출판서비스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 1011호  
                                  전화 701-8336 팩스 701-8335